

5-5 경전철 · 광역전철 건설

사업성격	☐ 신규 ☒ 계속	완료시기	☐ 임기 내 ☒ 임기 후	사업기간	2022.~2026.
중앙정부 도움필요성	☐ 해당없음 ☒ 도움필요 (☐ 제도 ☒ 재정 ☐ 권한)			사업주체	☒ 국가 ☒ 서울시 ☐ 자치구
총사업비 (백만 원)	계	국비	시비	구비	민자
	5,292,600	1,498,400	1,370,800	-	2,423,400
추진상황	☐ 완료 ☐ 이행 후 지속추진 ☐ 정상추진 ☒ 일부추진				
사업담당	교통행정과장: 조계석(☎879-6850) 교통행정팀장: 하민화(☎6851) 담당: 김보경(☎6859)				

◆ 경전철과 광역전철의 차질 없는 건설

◆ 관악구의 대중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서울서남권 지역발전 기여

1 현황 및 정책목표

☐ 현 황

- 폭12m 미만의 도로가 83% 차지하는 등 도로교통 여건 열악
 - 도로확충 등 공급위주 교통정책 한계
- 관악구, 도시철도 서비스 소외지역
 - 동서방향 지하철 2호선, 남북방향의 경전철 신림선 각각 1개 노선만 통과 대부분 지역 도시철도 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됨

☐ 정책목표

-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
 - 서부선·난곡선 경전철, 신안산선 철도건설로 도시철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

【 주민참여 】

- 서부선·난곡선 등 도시철도망계획 주민설명회 개최: 2019. 3. 26.(화)
 - 장소: 관악구청 대강당(8층) - 내용: 노선(안)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
- 서부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: 2022. 7. 25.(월)
 - 장소: 관악구청 대강당(8층) - 내용: 환경영향평가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
- 난곡선 경전철 주민설명회 개최: 2024. 12. 26.(목)
 - 장소: 난우중학교 강당 - 내용: 추진상황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
- 난곡선 경제성 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동의 서명운동 추진(1~3차): 2025. 4. 25.~12. 3.
 - 총 54,056명 주민동의서 확보 및 제출

2 추진계획 [정책개요]

☐ 서부선 경전철

- 사업기간: 2015. 6. ~ 2029. 12.
- 규 모: 연장 17.49km, 역 17개소
- 노 선: 새절역~신촌~여의도~서울대

☐ 난곡선 경전철

- 사업기간: 2015. 6. ~
- 규 모: 연장 4.13km, 역 6개소
- 노 선: 보라매공원역(신림선)
~신대방역(2호선)~난향초교

☐ 신안산선 광역전철

- 공사기간: 2019. 9. ~ 2025. 6.
- 규 모: 연장 44.7km, 역 19개소
- 노 선: 여의도(5·9호선)~구로디지털단지역(2)
~석수역(1)~광명역(KTX)~안산역



3 추진일정

구 분	2022		2023				2024				2025				2026				비고
	3	4	1	2	3	4	1	2	3	4	1	2	3	4	1	2	3	4	
1 서부선 경전철																			
2 난곡선 경전철																			
3 신안산선 광역전철																			

【 주요 추진실적 】

〈서부선 경전철〉

- 2021. 5. 30.: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(두산건설컨소시엄) 선정
- 2024. 12.18.: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통과

〈난곡선 경전철〉

- 2020. 11. 17.: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·고시(국토교통부)
- 2021. 10. 1.~2024. 12.: 난곡선 정상 추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
- 2025. 6. 27.: 사업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
- 2025. 10. 31.: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

〈신안산선 광역전철〉

- 2019. 9. 9.: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
- 2026. 4. 30.: 공정률 70.87%

4 투자계획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계	임기 내						임기 후
		소계	2022	2023	2024	2025	2026	
총 계	5,292,600	2,501,700	129,700	1,336,600	406,100	240,900	388,400	2,790,900
국 비	1,498,400	835,700	49,900	430,000	145,000	84,300	126,500	662,700
시 비	1,370,800	438,300	22,400	238,300	60,300	36,100	81,200	932,500
구 비	-	-	-	-	-	-	-	-
민자	2,423,400	1,227,700	57,400	668,300	200,800	120,500	180,700	1,195,700

※ 기투자액: 138,800백만 원(국비 43,900, 시비 18,500, 민자 76,400)

5 공약달성 확인지표

구 분		확인지표	단위	목표	2022	2023	2024	2025	2026
1	서부선	추진절차 진척률	진척률 (%)	100	-	-	75	75	100
					민자사업 협상	민자사업 협상	민간투자사업 심의위 통과		민자사업 협약체결
2	난곡선	추진절차 진척률	진척률 (%)	100	-	-	-	80	100
				예타 대상사업 선정	예타 진행	예타 진행	예타 진행	사업계획 조정 예타 재신청	예타 대상사업 선정
3	신안산선	공사 진척률	공정률 (%)	70	40	50	60	68	70
				공사 진행율	H파일 천공, 복공판, 터널굴착	토목공사 터널굴착	토목공사 터널굴착	토목공사 터널굴착	토목공사 정거장 작업

6 추진실적

☐ 추진실적 총괄

구 분	전체사업 대비비율(%)	확인지표	단위	목표	실적	사 업 이행률(%)	비 고
1	서부선	35	공사 진척률	%	100	75	75.0
2	난곡선	35	행정절차 및 착공률	%	100	100	100.0
3	신안산선	30	공사 진척률	%	70	70	100.0
총 이행률(%)						91.25	

☐ 예산 집행액

(단위: 백만 원)

구 분	계	임 기 내						임기 후
		소계	2022	2023	2024	2025	2026	
총 계	2,371,665	2,371,665	129,700	1,336,600	406,100	375,779	123,486	
국 비	834,591	834,591	49,900	430,000	145,000	157,827	51,864	
시 비	410,868	410,868	22,400	238,300	60,300	67,640	22,228	
구 비	-	-	-	-	-	-	-	
민 자	1,126,206	1,126,206	57,400	668,300	200,800	150,312	49,394	

☐ 일정별 추진실적

연번	일자	추진사항	세 부 내 용
1	2022.12. 30.	서부선, 민간투자사업 실무협상	교통수요, 총사업비, 사업내용 등
2	2023. 1. 26.	난곡선 건설 필요성 건의(구→시)	교통현황, 주변개발계획, 환승여건 등
3	2024.12. 18.	서부선, 민간투자심사위원회 통과	민간투자심사위원회(기획재정부)
4	2025. 5. 30.	난곡선,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건의	예타 재추진 건의 및 주민서명부(49,425명) 전달
5	2025. 6. 27.	난곡선, 사업계획 변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	경제성제고방안 마련, 예타 재신청(시→기재부)
6	2025. 10. 31.	난곡선,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	2025년 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
7	2025. 11. 19.	난곡선, 예타조사 경제성 개선방안 3차주민동의서명	기재부 방문 전달(2025.12.15.)
8	2026. 1. 15.	난곡선, 예타 관련 현장조사 실시	KDI, 서울시, 관악구

☐ 주민 참여(소통) 실적

연번	일자	구 분	세 부 내 용
1	2022. 7. 25.	주민설명회	서부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
2	2024.12. 26.	주민설명회	난곡선 경전철 주민설명회 개최
3	2025.4.~6.26.	주민 서명	난곡선 예타통과 위한 경제성 개선방안 주민동의 서명 운동 전개
4	2025. 12. 15.	기재부 방문	3차 주민동의 서명 운동 및 기재부 방문 주민의견 전달

7 향후계획

- ☐ (서부선)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(예정)
- ☐ (난곡선) 예타 완료(2026년 하반기 예정)
- ☐ (신안산선) 2026년 12월 개통(예정)

8 협력사항

- ☐ 중앙정부·서울시 협력사항
 - 교통복지 실현 위해 서부선 · 난곡선 경전철 건설 필요
 - 경제성보다 시민편의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효과를 우선하여 경전철 조기 건설

9 기대효과

- ☐ 지하철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 및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
- ☐ 사통팔달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대중교통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 견인